

까 치 와 養 苗

名譽會長 金 命 源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서 우리나라 모두가 반가히 맞이하는 텃새이다. 따라서 전국 15개 시·도중 서울, 대전, 충북, 전북(도)에서는 그 시·도의 새로 지정해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 보호조이다. 그런데 그 까치가 우리 양묘업계, 특히 잣나무 묘포에는 큰 피해를 주는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다.

잣파종을 한 후 얼마간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기간 지내는 사이에 잣파종지임을 알게되면 인근에서 집단이주하여 동지를 틀고, 새끼를 치고, 좋은 직장으로 알고 어두운 밤중을 제외한 24시간 계속 근무하며 수 십마리의 집단습격의 경우는 포지를 황폐화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새다. 우리나라 조림수종중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잣나무 양묘는 연간 약4000만본 파종하는 종자량만 하더라도 무려 100,000ℓ(1000가마니)에 달하는데 파종 후 1년간 까치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파종 직후부터 잣종자를 파헤쳐 까먹으며 발아 후에는 어린묘를 잘라 먹고 연중 두고두고 미발아 종자를 찾느라고 포지를 파헤치며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동물원처럼 전 포지를 그물(망)을 치는 방법 외에는 새몰이일꾼 배치, 망사덮기 등 방법으로는 피해를 완전 피하기가 어렵다. 원래 까치는 새벽부터 밤 어두울때까지 부지런 하고 또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습격해 오는 공격형 새다. 예전에는 약

물독살 등 극단적 처방까지 시도한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조로써 상상도 할수 없는 치외법권적 골치 아픈 우리의 강적이다. 까치새 피해는 우리 양묘뿐만 아니라 과수원, 한전의 송전사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도 까치로 인한 정전사고는 500여건(1992. 6.1. 세계일보), 정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한전직원이 동원되고 까치집을 철거한 숫자만도 무려 60,000여개에 다다른다. 그러나 까치는 한번 철거당해도 똑같은 자리에 몇번이고 되풀이 해 다시 짓는 습관이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과수원 경영에서도 수확기에 이른 완숙 과일중 최고급품만 골라서 쪼아먹는 피해는 과수농원주의 분노를 사고도 남음이 있다.

이상과 같이 폭군 까치의 피해에 대하여 최근 일본의 모대학 교수가 개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고무풍선을 금춘삼월 내한한 일본 북해도 양묘업계의 원로 小高一郎의 권장으로 도입, 현재 사용중으로, 확실한 결과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회원 여러분의 참고가 될가하여 사진 첨부 소개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까치를 살생하지 않고 보호, 공생하며 우리양묘도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회원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노력하여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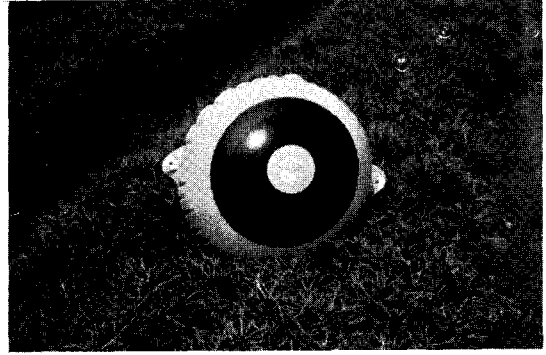
- ※ (1) 까치예방용 풍선은 묘상에서 1m 높이로 뜨게 나무못을 땅에 박고 실로 맨다(300평당 2개)
- (2) 본 풍선은 각도에서 주문하는 숫자

를 집계하여 일괄주문 제작코자 하
오니 희망구입 수량을 본회에 미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까치피해지 잣나무1-0



까치예방용 풍선